

다니엘서 - 제130번

미국의 예언적 전환: 제6왕국에서 삼중연합으로

Jeff Pippenger

2024-03-11

미국이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을 집행할 때, 미국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여섯째 왕국의 지위를 잃고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을 이루는 세 부분 가운데 하나로 전환될 것이다. 그 일요일 법령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일 것이다. 이는 두 증인에 의해 확증된다.

공화당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말했는데', 이는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에서 '말함'의 중간 이정표였다. 링컨이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말했을 때', 그는 공화당의 첫 대통령이었고, 따라서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을 예표했다. 아브라함 링컨은 땅의 짐승의 첫 번째 기간의 마지막 이정표이자 두 번째 기간의 첫 이정표를 대표한다. 예수님은 언제나 처음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신다. 두 기간 중 마지막의 끝에서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할 때, 대통령은 링컨이 예표한 대로 공화당 대통령일 것이다.

마지막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1989년에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끝의 때에 시작된 그 기간이다. 1989년부터 곧 임할 주일법에 이르는 예언적 기간은 508년에서 538년에 교황 로마가 권좌에 오르기 위한 준비의 예언적 기간으로 표상되어 왔다. 538년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도록 하는 그 예언적 준비 기간은 그리스도의 준비 기간 30년, 곧 그의 탄생부터 세례까지로 예표되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30년 준비를 모방한 30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모두에게 있었던 30년의 준비 기간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위한 준비 기간이 있음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된다. 그 준비 기간은 1989년 종말의 때에 시작되었으며, 마치 그리스도의 준비 기간이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시작되었고 그 사건이 그분의 예언적 역사에서 종말의 때를 표시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대통령에 앞서, 다니엘서 11장 2절은 글로벌리스트 진영을 '뒤흔드는' 부유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 여섯 명 가운데 첫째는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로널드 레이건과 아브라함 링컨이 두 증인이 된다. 1863년의 반란이라는 이정표와 1989년에 시작된 대통령들의 계보는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의 특징을 정확히 지목한다.

로널드 레이건은 첫 번째를 상징하며, 따라서 마지막을 보여준다. 레이건은 한때 미디어 스타였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한 인물이었다. 그는 도발적인 영어 구사로 알려졌다. 그는 유머 감각으로도 유명했다. 그는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지만,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었을 때 개신교가 무엇을 뜻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그는 친미 성향이었고 정치적으로 대담했다. 그는 현대 정치의 그 시대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의 뒤를 이었으며, 그의 전임자는 급진 이슬람의 요구에 굴복했었다. 아마도 그가 한 말 중 가장 중요하고 그가 성취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가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십시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마지막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래서 처음 것에 의해 예시되어 왔다. 트럼프는 한때 미디어 스타였고, 민주당원이었다가 공화당으로 전향했다. 그는 도발적인 영어 사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머 감각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을 개신교 신자라고 밝히지만, 개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게 될 것이다.

그는 친미 성향이며 정치적으로 거리낌이 없다. 그의 전임자는 현대 정치에서 그 시기의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2024년에 그가 재선되면 그는 또다시 현대 정치에서 새롭게 가장 무능하다고 평가되는 대통령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그의 전임자들은 급진 이슬람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 그가 지금까지 한 발언 중 가장 중요하며, 성취한 공로로 인정받게 될 것은 '장벽을 세워라'이다.

이는 지미 카터, 버락 후세인 오바마, 조 바이든이 대통령 재임 중 매우 유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유능함은 그들 각자가 준수하고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바로 그 문서인 미합중국 헌법에 새겨진 원칙들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여기에 카터가 레이건이 당선될 때까지 이슬람이 인질을 붙잡아 두도록 허용했다는 사실, 오바마가 이슬람권을 상대로 사과 외교 순방을 하고 급진 이슬람의 주된 은행에 최소 10억 달러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사실, 그리고 바이든의 이슬람 지지 기록은 나열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점이 더해진다.

로널드 레이건은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상징적 장벽을 허무는 일을 이루었고, 1989년 11월 11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그 영적 정복을 물리적 이정표로 표시했다. 트럼프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상징적 장벽을 허물 것이며, 셋째 화가 그 사건의 물리적 이정표를 제공할 것이다. 그 사건은 14만 4천의 인침 기간을 종결할 것이며, 그 기간은 셋째 화에 속한 이슬람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 도래는 인침 기간의 영적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물리적 이정표를 제공했다. 2023년 10월 7일은 14만 4천의 인침 기간을 나타내는 세 가지 실제 역사적 이정표의 중간 지점이 되었다.

그 인침의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로널드 레이건 이후 여섯 번째 대통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상징적으로 정치적 암살을 당했다. 인침의 때가 시작될 때 무저갱의 짐승은 이슬람이었고, 모하메드를 대표하며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었다. 인침의 때가 끝날 때의 무저갱의 짐승은 가톨릭의 바다 짐승으로,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다. 인침의 때 한가운데에 올라오는 무저갱의 짐승은 무신론의 짐승, 곧 용이다. 무저갱의 용 짐승은 인침의 때 한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죽인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지지하던 민주당 내 용 파벌은 미국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을 말 그대로 죽였다. 남북전쟁은 1865년 4월 9일 공식적으로 끝났고, 링컨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5일에 사망했다. 그는 그 전날 총격을 당했다. 전쟁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끝났고, 링컨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죽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대통령에 맞서 깨어난(부추겨진) 세계화주의자들은 2020년 11월 3일 정치적 암살을 성사시켰다. 끝없는 구렁텅이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의 실제 죽음이 그 예가 되듯,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죽인 용의 짐승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그의 죽음을 두고 기뻐한 뒤에 그가 다시 발로 일어설 것이라고 밝힌다. 이제 2024년이 되었고, 그를 향해 쏟아지는 온갖 법률 공세와 거짓, 선전, 그리고 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에서 드러나, 그로써 전 세계에서든 같은 논쟁을 예고하는 그 논쟁 속에서, 위로부터 늦은 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때에, 아래로부터 사탄의 세력이 올라올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의 역사에서부터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 셋째 화의 이슬람이 무저갱에서 연기처럼 나왔는데, 그것은 그 역사의 시작에 불타는 건물들의 연기를 상징했다. 2016년에는 글로벌리스트들의 공산주의적 각성주의가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 부상했다. 그런 다음 일요일 법이 곧 임하면, 자신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면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 짐승이 될 교황권이 지상의 왕좌에 오를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아래로부터 오는 권세를 상징하는 그 짐승들은 예언적 "진리"를 나타낸다. 연기처럼 먼저 올라올 것은 셋째 화의 이슬람인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이 울릴 때이며, 늦은 비가 "측량되기" 시작할 때 올라온다. 마지막으로 올라올 짐승은 교황권으로,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울릴 때이며,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질 때 올라온다.

첫째는 마지막 것을 상징하고,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2020년에 두 증인을 살해한 무신론적 세계주의의 짐승이다. 한 증인은 개신교의 뿔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화당의 뿔이었다. 무신론의 짐승과 연관된 반역과 무정부 상태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로 나타나며,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무저갱의 첫째 짐승과 마지막 짐승 사이에 나타났는데, 이는 히브리어 단어 '진리'의 정의를 형성한다. 비록 그 진리가 하늘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하는 때에 아래로부터 오는 사탄적 권세를 식별하는 진리일지라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반이 지나자 "중간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소리의 "끝맺음"이었고, 남녀를 갈멜 산으로 부르는 엘리야의 소리의 시작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때의 중요성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일깨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공세적인 움직임들이 일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기념이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거룩함이 전혀 없는 거짓 안식일이 세상 앞에서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래로부터 세력들을 선동하고 있는 동안,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시어 그의 살아 있는 일꾼들을 일으켜 하늘의 율법을 높이게 하심으로 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외국에서 일할 우리의 때입니다. 종교의 자유의 땅인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될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 본보기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백성은 경고의 기별을 널리 전하기 위해 손이 닿는 수단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에는 아직 절반도 깨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전하게 하려고 그분의 파수꾼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법으로 인한 그분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 기별이 더욱 분명히 선포될 때까지 은혜의 기간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높임을 받아야 하며, 그 요구들은 그 참되고 거룩한 성격 그대로 제시되어 백성들이 진리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업은 의로써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끝에서 땅끝까지 울려 퍼져야 한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증언, 6권, 18, 19쪽.

2023년 7월 말에 시작된 그 기별은 이제 “경고”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 때의 중요성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아래에서 요소들을 뒤흔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분명히 지목하고, “하늘의 주 하나님”이 2001년 9월 11일에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기” 시작하셨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 이제 “이 때의 중요성”에 “깨어날” 때가 매우 시급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과 범법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온 세상에 내리기” 시작하시려 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끝의 때로 1989년으로 제시되는 예언의 선은, 같은 절에서 끝의 때로 1798년으로 제시되는 내적 예언의 선과 달리 외적 역사를 강조한다. 그 절에서 1989년부터 시작되는 예언적 역사는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세 단계 과정을 드러낸다. 1989년부터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는 특정한 예언적 기간을 이룬다. 다니엘 11장 2절은 1989년에 로널드 레이건으로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들의 예언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두 번째 선을 더한다.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그 예언적 기간에는, 교황권이 처음으로 왕좌에 오르고 바로 그해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켰던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30년 준비 기간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른 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삼 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교황권은 그리스도의 사탄적 모조물이며,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30년은 그분이 세례에 이르기까지의 첫 30년을 모조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모조하여 교황권이 세상에 사망의 사역을 내세웠던 삼 년 반의 예언적 기간은, 그분의 삼 년 반의 사역을 모조한 것이다.

그분의 사역이 끝날 무렵 그분은 죽으셨고, 일곱째 날에는 무덤에서 안식하셨으며, 그 후 부활하셨다. 1798년에, 예언적 3년 반 동안 계속된 교황권의 사탄적 사역이 끝날 무렵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었고, 그 후 상징적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일곱에 속한 여덟째로서 부활한다. 그리스도는 한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지만, 순서상으로 첫날은 ‘여덟째’ 날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일곱’ 날들에 속한다. 숫자 여덟은 ‘부활’을 나타내며, 교황권은 부활하게 되는데, 교황권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왕국들 가운데 치명상을 입는 것으로 지목된 유일한 왕국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을 때, 그 사건이 세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1, 2.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세례의 예식은 문자적 이스라엘의 할례 예식을 대체했으며, 할례는 여덟째 날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고, 일곱에 속한 여덟째로서 교황권이 부활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열에 대한 사탄적 대응물이 된다. 교황권이 즉위하기 위한 30년의 준비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사역과 죽음을 준비하신 30년의 생애로 예표되었다. 그 두 계열 모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한 기간을 지목한다. 두 계열 모두 땅의 짐승의 마지막 기간을 대표한다. 그리스도의 계열에서는 그분의 탄생이 그 역사에 대한 "끝의 때"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네 개의 선이 있다. 1989년에 해당하는 40절의 '종말의 때'에서 41절의 일요일 법령까지. 2절에 제시된 대통령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모두를 위한 30년의 준비. 그리스도의 30년은 그의 선에서 '종말의 때'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탄생으로 표시되었다. 1798년의 '종말의 때'는 문자적 바벨론에서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의 끝으로 예표되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2절은 다리오로 시작하는데, 이는 바벨론이 함락될 때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9년은 40절에서의 '종말의 때'이며, 다니엘 11장 2절도 또한 '종말의 때'이고, 그리스도의 준비의 30년은 '종말의 때'에 시작되었다. 이 네 개의 선 중 셋은 시작의 이정표로서 '종말의 때'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첫째 천사의 운동과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각각 220년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기간은 220이 인류와 신성 사이의 연결을 상징함을 보여 준다. 1776년에 시작된 이 220년의 상징적 연결은 1996년으로 이어졌다.

그 기간은 밀러주의의 역사에서 1611년부터 1831년까지의 220년으로 예표되었다. 1776년의 독립선언부터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왕좌에 오른 1798년까지의 기간은, 1996년에 끝난 220년의 기간 안에 있는 세 개의 이정표 가운데 처음 두 개를 나타낸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권세 획득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30년 준비 기간과 일치한다. 땅의 짐승이 권세를 받기 이전의 기간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짐승인 삼중 연합이 권세를 받기 이전의 기간을 가리킨다. 일곱에 속한 여덟째 짐승은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출현이다.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한 첫 번째 출현에는 3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줄 위에 줄을 더하듯이,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역사, 538년에 이르게 한 30년의 역사, 그리스도의 침례에 이르게 한 30년의 역사, 로널드 레이건에서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다니엘 11장 2절의 역사, 그리고 1776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역사는 모두 말세의 동일한 역사를 대표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1776년에 시작하여 1798년에 이르는 역사가 모든 줄을 하나로 모아 분명히 해 주는 줄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종결기에 해당하는 그 예언적 역사 속에는, 참된 개신교의 뿔로 대표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 흐름이 있고, 공화주의의 뿔로 대표되는 외적 흐름도 있다. 두 뿔 모두에서 예언이 다루는 이중적 투쟁과 논쟁이 있다. 우리는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슬람의 예언적 요소들을 식별해 왔다.

용의 예언적 특징은 그가 거짓의 아버지요 살인자이며,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 벌어지는 비밀 음모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다. 그의 종교는 강신술이다. 그는 오늘날 'lawfare'라고 불리는 것의 대표적 주창자요 불경한 변호사이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다. 그는 하늘 법정에서 용의 순종과 믿음을 두고 다투었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으며, 또 스가랴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일을 두고서도 다투었다. 그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자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자이다.

그 짐승의 종교는 가톨릭교이며, 그녀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전통과 관습을 통해 세상을 미혹하는 여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주술로 세상을 속이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서 그 '주술'은 그리스어 '파르마케이아'로, '약물'을 뜻한다. 그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자다. 그녀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이의 모조품이다. 그녀는 잊혀졌다가 다시 기억되는 자이며, 또 일곱에 속한 여덟째다. 그녀는 미국이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 짐승을 위한 형상도 만드는, 바로 그 짐승이다.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개신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하는 어떤 것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여전히 주재님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나 백성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체하기 위해 세속 권세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배도한 개신교는 이세벨과 헤로디아를 위해 기만적인 춤을 제공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이며, 또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이기도 하다.

이 세 세력은 삼중 연합으로 함께 뭉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미워한다. 그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열 왕(유엔)이 자기들의 왕국을 교황권에 넘겨주기로 동의하고, 또 같은 장에서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사르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세력들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의 예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

이슬람은 일곱째 나팔이며, 셋째 화로서 하나님께서 현대 바벨론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이다. 이는 처음 네 나팔이 서방의 이교 로마에,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교황 로마와 동방의 이교 로마에 심판을 내린 것과 같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처럼 특별히 중대한 때에, 하나님의 양 떼를 맡은 목자들은 영적 세력들이 대립하고 있음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 종교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격렬한 감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영적 회당에서 나온 한 권세가 세상의 종교계 전반에 스며들어, 사탄이 얻은 이점을 더욱 밀어붙이도록 사람들을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부추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길잡이요 교리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이들을 상대로 단호한 전쟁을 벌이도록 종교계를 이끌고 있다. 여호와의 율법의 구속력 있는 요구, 특히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넷째 계명에 맞서기 위해, 사탄은 지금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원리와 모든 권세를 한데 모으는 노련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

불법의 사람은 때와 법을 바꾸려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루었는가? 이것이 큰 쟁점이다. 로마와 그녀의 불의의 잔을 마신 모든 교회들은 때와 법을 바꾸려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념물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허물어 버렸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과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나타내도록 세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신 모든 일에서 쉬셨기 때문이다. 대기만자의 교묘한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가 때와 법을 바꾸려는 노력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서는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 왔다.

여기에 중대한 쟁점이 있다. 여기 서로 맞서는 두 위대한 세력이 있다—하나님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둠의 왕자, 사탄. 이제 공개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만 있을 뿐이며, 모든 인간은 이 두 깃발 중 하나 아래에 서게 될 것이다—어둠의 왕자의 깃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든.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성령으로 충성되고 진실한 자녀들에게 감화하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며,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주님의 곡간에 들이기 위해 충성되고 진실한 이들을 단으로 묶으실 것이다. 사탄도 또한 치열하게 활동하여 밀 가운데서 자기의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 모으고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사신의 가르침은 지금 지극히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영원을 좌우하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여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오, 이 싸움에는 영원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데 걸핍기식 일도, 값싼 체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며,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벌받도록 지키실 줄 아신다.... 반면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더 큰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고발을 제기하지 아니하느니라.' 총회 일일 회보, 1895년 3월 4일.